



미 증시,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지속되며 약세

미국 증시 리뷰

9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국채 입찰 호조에 따른 10 년물 금리 하락으로 성장주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으나, 5 월 소비자물가,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지속된 여파로 하락 마감(다우 -0.4%, S&P500 -0.2%, 나스닥 -0.1%). 업종별로는 헬스케어(+1.0%), 유틸리티(+0.9%), 부동산(+0.2%) 등이 강세, 금융(-1.1%), 산업재(-1.0%), 소재(-0.8%)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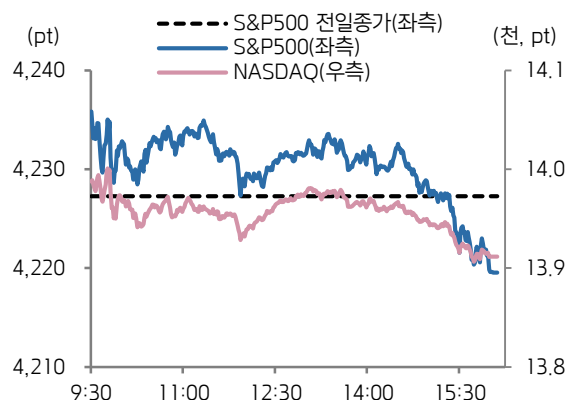
380 억달러 규모로 진행됐던 미국 10 년물 국채 입찰은 응찰률 2.58 배, 발행금리 1.497%로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임. 이로 인해 10 년물 금리는 장중 1.4%로 내려오며 지난 3 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소비자물가 경계심리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진행 쪽으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중국의 5 월 소비자물가는 1.3%(YoY)로 전월(0.9%)에 비해 상승했으나, 예상치(1.5%)는 하회. 반면, 5 월 생산자물가가 9.0%로 전월(6.8%) 및 예상치(8.6%)를 모두 상회하며 2008 년 9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가격 안정화 의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9 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만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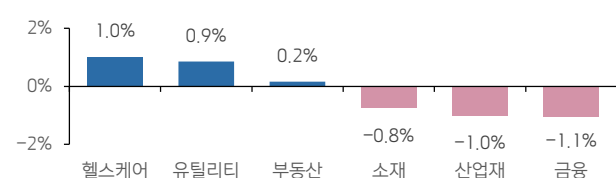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중심에 있지만, 최근 들어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노이즈도 재차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무어 상원의원과 인프라 투자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 투자 규모(백악관 1.7 조달러 VS 공화당 9,280 억달러), 지원 범위, 증세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자 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협상 결렬의 배경.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완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주요 인프라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 불가결 요소. 따라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안의 통과는 기정사실화로 판단하고 있으나, 협상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시장에 노이즈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6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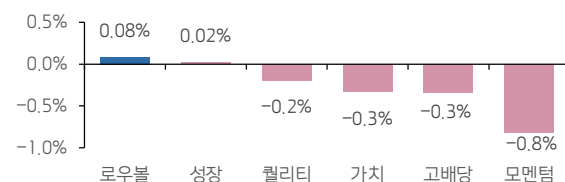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9일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6월 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장중 수급 여건 급변화 가능성 2. 미국 소비자물가 및 ECB 회의 결과를 앞둔 경계심리 심화 여부 3. 최근 주가 조정을 받은 시클리컬 업종들의 단기낙폭 과도인식성 매수세 유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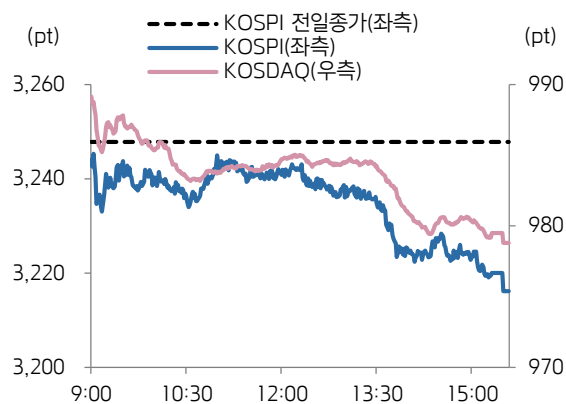
한국 증시 리뷰

9 일(수) 코스피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여행 규제 완화 소식으로 여행, 레저 등 경제 재개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10 일(목) 미국 소비자물가 결과 불확실성,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경계심리 확산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세에 나섬에 따라 하락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0.7%). 업종별로는 섬유·의복(+2.4%), 통신(+0.3%), 전기가스(+0.2%) 등이 강세, 의약품(-1.9%), 철강금속(-1.9%), 증권(-1.9%) 등 5 개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약세. 수급별로는 개인이 7,878 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98 억원, 4,585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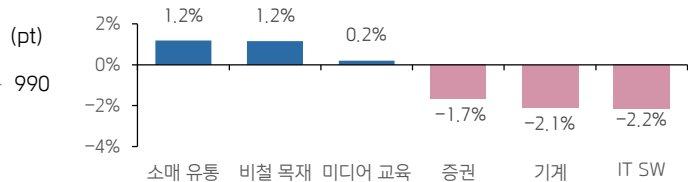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 ECB 회의 경계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또한 국내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른 현선물시장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 후반 갈수록 장중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물론 전거래일 중국 물가 지표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나, 미국 10 년물 입찰 호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악재보다는 중립 수준으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난 4 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시장의 단기 불안을 유발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금일에도 유사한 현상이 출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현재 연준위원들도 FOMC 를 앞두고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 했으므로,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연준의 의견을 시장이 접할 수 없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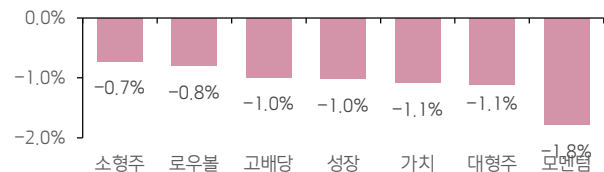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